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016. 11. 7

금 용 위 원 회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사말씀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오늘 회의에는

금융위·금감원의 전 간부들을 포함하여

우리 금융시장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을 함께 모셨습니다.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여리박빙(如履薄氷)*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여리박빙(如履薄氷) : 얇은 얼음을 밟듯 몹시 위험함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글로벌 증시상승률(9월말 → 11.4일, %)

(미국)△2.3, (영국)△3.0, (독일)△2.4, (MSCI선진국)△3.8 (MSCI신흥국)△2.6

우리 금융시장도 국내외 불안요인이 가중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환율도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 코스피 : (9월말) 2,044 → (11.4일) 1,982, △62p (△3.0%)

환율(원/달러) : (9월말) 1,101원 → (11.4일) 1,143원, + 42원 (+3.8%)

연초부터 지속된 美 금리인상, 유럽은행 부실문제,

브렉시트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주춤하고, 고용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대내 리스크도
우리 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수출] '16.8월을 제외시 21개월간 수출 감소
* 수출증가율(전년동월비,%) : ('15년)△8.0 ('16.1~6)△10.1 (7)△10.4 (8)26 (9)△5.9 (10)△3.2
- [고용시장] 청년 실업률* 및 청년 실업자수**가 증가
* ('15.9) 7.9% → ('16.9) 9.4% / ** ('15.9) 35만8천명 → ('16.9) 41만6천명

특히, 최근 대내외 여건상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자칫, '리스크 관리'에 작은 빈틈이라도 생기면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 전체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 경제의 대응여력

우리의 경제·금융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을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2016년의 한국 경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붕괴되었던 '97년의 위기나,
외환부문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던
'08년 위기상황과는 다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양호한
세계 최상위권의 재정정책 여력과
외환·금융건전성 등 튼튼한 기초체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재정건전성]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OECD 31개국중 4위
* 정부부채/GDP(% '15말) : (美)111.1 (獨)74.9 (佛)122.8 (日)231.7 (스웨덴)51.2 (韓)35.5
- [외환건전성] 세계 7위 수준의 외환보유액, 낮은 단기외채 비중
* 외환보유액('16.9말,조\$) : (中)32 (日)12 (사우디)0.6 (스위스)0.7 (대만)0.4 (러시아)0.4 (韓)0.4
* 단기외채/외환보유액(%) : ('08말)74 (10)47 (12)39 (14)32 (15)29 (16.2Q)29
- [금융시스템 안정성]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양호
* '16.6월말 기준[규제비율] : 은행 BIS 비율 14.39%[8%],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88.0%[100%], 증권사 NCR 560.9%[150%] 등

이러한 견고한 대응여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팀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와 금융부문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분야별로, 상황에 맞게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대내외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지만
우리 경제와 금융은 단 하루도 쉬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현재의 상황에 단호한 각오로
긴장의 끈을 단 한 순간도 놓지 않을 것입니다.

3 금융부문 대응방향 및 당부사항

1. 금융위, 금감원 합동 비상대응체계 가동

금일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비상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내의 금융시장 상황을 빠짐없이
24시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2. 가계·기업부채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다음으로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기업부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가계부채는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빌리고 조금씩 나눠 갚는다’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최근 **집단대출,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부문별·요인별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단기간내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취약한 리스크 관리가 우려되는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대출기준이나 위험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등 **현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빠를 깎는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되,

연관 산업 및 지역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하여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 외환건전성 강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의 공조체계 하에
금융권 외화차입 여건과 대외 익스포저 관련 특이동향은
일별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간 즉시 공유**하여
외환부문의 견고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신용평가사, 주요 해외투자자, 국제기구 등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커미티드 라인과 고유동성 외화자산 추가 확보 등
외화유동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도록 관리해주시고

금융회사별로 마련된
비상 외화조달계획을 재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

불확실한 경제여건 속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중소기업과 서민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지원은
한 치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이
금융애로를 겪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책금융 역량을 총 동원하여
메워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 작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은행연합회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은행들이 보다 세심하게 여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경우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자금 대출의 역량을
서민층 주택구입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사잇돌대출 취급기관 확대와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 등 중금리 대출을 보다 활성화하여
서민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지난 9.27일 발표한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개선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착근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5. 금융권에 대한 당부사항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실물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금융권에서
외화유동성 상황과 건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어떠한 대외 충격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금융회사들이 실제 영업현장에서부터
가계·기업부채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융개혁은 자율뿐만 아니라
그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율이라는 측면만 내세워
금융회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거나,

불건전 영업행위로 시장 질서를 훼손하여
금융권 스스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로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 성과중심문화 확산 등
금융부문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서만
우리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정보를
시장 참가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투자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소를 중심으로 시장 정보에 대한 공시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시장분위기에 편승해서 시장 변동성을 높이거나
확인되지 않는 루머 유포 등으로
불안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마무리 말씀

“금융시장 안정”은
활력을 잃고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절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트루먼 前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은
“The Buck stops here” ,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저를 비롯하여 금융위·금감원 간부와 전 직원은
현 상황을 위기수준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자신이 금융시장의 최후의 보루라는 결연한 각오로
금융시장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전 금융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상황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 주십시오.

끝으로,
우리 경제에 투자하고 계신
국내, 해외 투자자들께서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불확실성은 곧 해소될 것이며,
우리 경제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국제기구가 평가하듯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은
객관적으로 견고한 대응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일시적인 불안요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